

## 초등학생 부모의 체벌 지도도가 신체적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안 혜 영\*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아동학대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였던 고대 희랍시대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하여 왔으며 현재에도 상당한 문제이지만 그것은 가정 안에 숨겨진 현상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고운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체벌을 훈육수단으로 인정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실어 매를 때려도 그것은 교육을 위한 <사랑의 매>지 결코 학대 차원의 <구타>로 여기질 않는다(Sito, 1994).

최근 Hong(2000)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52개 지역에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1,094가구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신체적 아동학대 발생율은 23.5%였다. 이중 어머니에 의해 발생한 구타가 훨씬 많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우 심각한 신체 학대 수준인 폭행 및 상해도 0.6%는 아버지에 의해 일어나는데 반해 7.3%는 어머니에 의해 발생하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보고에서 주로 아버지에 의해 심각한 신체적 학대가 발생한다는 것과는 약간 상반된 것으로 어머니들에 의한 신체적 학대가 위험 수위에 달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신체적 학대가 발생하는 이유의 초점은 정서적으로 미숙한 부모가 양육에 대한 흥미의 결여와 아동의 행동을 이해하는 공감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아동을 구타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 지를 생각하기 보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때리는 부모가 늘어났다. 양육태도에 대한 일반 아동과 부모의 조사에 의하면 과거에 비하여 현대 어머니들이 좀더 체벌을 많이 사용하고 좀더 처벌적인 것을 알 수 있다(Ahn, 1998).

특히 자녀수의 격감은 부모가 아동에게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좀 더 간섭을 많이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극단적인 과잉보호나 과잉통제 현상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잉통제는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 또는 자신의 분신으로 보아 자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빚어내려는 부모의 욕심과 경쟁적 사회풍토인 '조기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진다(Lee, 1974).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는 예로부터 체벌을 절대적인 훈육의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사회문화적 특성(Choi, 1981)과 가부장적인 전통(Kim, 1985), 그리고 아동과 성인의 관계에서의 왜곡된 장유유서의 전통(You, 1985)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미화되어왔다.

우리 나라 전체 아동 학대 발생율이 외국의 경우에 비해 높은 수준에 달하고, 특히 체벌의 경우 74.6%에 달하여 구타나 폭행 및 상해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 을지의과대학교 간호학과

수 있다. 아동을 부적절하게 다루고 양육하는 부모들에 대한 부모교육 및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 시킴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Hong, 2000).

사회의 원초적 단위이며 인류문화의 가장 소중한 유산인 가정에 긴장이 내재하게 될 때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사회나 국가의 건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아동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태의 학대는 어린이들에게 신체적 손상 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치료하기 힘든, 그들의 자존심과 독립심을 파괴하는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일차적 환경이 되는 가정에서 학습된 폭력은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 폭력의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아동학대의 세습화를 예방하고 오늘의 어린이들로 구성될 밝고 맑고 건전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학대의 예방, 치료는 우리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가 아닐 수 없다(Ahn, 1999).

이에 본 연구는 신체적 아동학대의 가장 많은 희생자가 되는 초등학생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체벌에 대한 인식과 신체적 아동학대의 정도를 파악하고, 신체적 아동학대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제 변인들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여 초등학생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초등학생 부모의 인구나사회학적 특성이 신체적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2) 초등학생 부모가 지각하는 체벌 지지도가 신체적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될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신체적 아동학대

이론적 정의 : 아동 양육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몸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아동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증진 및 복지를 저해하는 신체적 가해 행위이다(Ahn,

1998).

조작적 정의 : Straus(1979)가 가족간 갈등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지표로 개발한 Conflict Tactics Scales 중에서 아동학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N문항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측정된 점수이다. 이중 1-3번 문항은 경한 아동 학대, 4-6번 문항은 심한 아동학대, 7-10번 문항은 아주 심한 아동학대를 의미한다.

### 2) 체벌 지지도

이론적 정의 : 체벌의 사용에 대한 개인의 신념(Ko, 1992)을 나타낸다.

조작적 정의 : Ko(1992)가 개발한 체벌에 대한 지지도 척도에 의해 측정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체벌에 대한 강한 신념을 의미한다.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은 일 개 지역 초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전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생 부모의 인구나사회학적 특성과 체벌 지지도가 부모에 의한 신체적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대상자의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부모로서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에의 참여에 동의한 자, 그리고 아동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부모로 하였다. 이상의 기준에 맞는 전북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 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5개 학급 아동의 부모 혹은 모 160명을 대상으로 편의 표출을 통해 자료 수집하였으며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버린 후 총 153개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 3. 연구 도구

#### 1) 신체적 아동 학대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아동학대의 측정 도구는 Straus(1979)의 가족갈등척도(Conflicts Tactics Scales)중에서 폭력 척도를 번안, 수정(Kwon, 1992)한 것이다.

가족갈등 척도는 가족간 갈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지표들로서 추론(Reasoning), 언어적 공격(Verbal Aggression), 그리고 폭력(Violence)의 3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폭력 척도는 폭력정도가 낮은 문항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폭력정도가 높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힘을 사용하여 신체적인 상해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체적 아동 학대의 측정 도구는 3개의 가벼운 정도의 학대와 도구를 사용하여 심한 상해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7개의 학대행위의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족갈등 척도(CTS)의 응답 범주들은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각 항목의 행동 빈도에 '전혀 없다', '1-2회', '3-5회', '6-10회', '11-20회', '20회 이상'의 범위에 걸쳐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나, Kwon(1992)과 Ahn(1998)의 연구에서 아동에 맞게 '전혀 없다', '1회', '2-11회', '12회 이상'으로 수정하여 사용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 당 '전혀 없다'에 0점, '1회'에 1점, '2-11회'에 2점, '12회 이상'에 3점을 주어 점수의 합을 신체적 아동 학대 점수로 사용하였다. 신체적 아동학대 점수가 높을 수록 신체적 아동학대를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 2) 체벌에 대한 지지도

체벌의 보편적 사용에 관용적이며, 문화적 규제가 적은 사회분위기이거나 부모가 체벌의 효과에 대해 확신이 있는 경우에 신체적 학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련 연구의 결과를 Ko(1992)가 개발한 체벌에 대한 지지도 척도이다.

이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응답 범주는 4범주이며, '전적으로 찬성'에 4점, '대체로 찬성'에 3점, '대체로 반대'에 2점, '전적으로 반대'에 1점을 준다. 부정적 질문에 대해서는 그 반대로 점수를 주어 총 점수로 체벌에 대한 지지도 점수를 산출한다. 체벌에 대한 지지도 척도는 체벌과 관련된 속담이나 격언, 체벌의 효과에 대한 확신 문항, 체벌의 불가피성과 관련된 문항과 부모의 체벌 권한 소유와 관련된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총점은 10점 부터 40점까지로, 본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alpha = .72$ (Ko, 1992),  $.65$ (Ahn, 1998)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alpha = .65$  였다.

#### 4.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자가 해당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담임선생님께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소개한 후,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그 후 학생들에게 설문지의 목적, 익명의 보장, 설문지 기재요령을 설명한 후 가정으로 보내 부모가 설문지에 응답한 후 가져오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10일 후 다시 학교를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 5. 자료분석 방법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체적 아동학대는 백분율과 평균으로, 부모의 체벌 지지도는 평균값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체벌 지지도와 부모의 신체적 아동학대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연령은 30-40세 미만이 83명(55%)으로 가장 많았고, 40-50세 미만이 66명(43.7%), 30세 미만이 2명(1.3%)이었다. 아동과의 관계는 어머니가 105명(71.9%)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가 40명(27.4%), 기타가 1명(.7%)이었다. 결혼 상태는 동거형태가 68명(91.9%)으로 가장 많았고, 사별은 3명(4.1%), 이혼이 3명(4.1%)이었다. 교육정도는 고졸이 74명(50.7%)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이 59명(40.4%), 대학원 이상이 7명(4.8%), 중졸이 4명(2.7%), 국졸이 2명(1.42%)이었다. 가족의 수입은 100-200만원 미만이 77명(52.4%)로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 미만이 42명(28.6%), 300만원 이상이 17명(11.6%), 50-100만원 미만이 8명(5.4%) 50만원 미만이 3명(2.0%)이었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N	%
age	-30 yrs	2	1.3
	30-40 yrs below	83	55
	40-50 yrs below	66	43.7
relation of child	mother	105	71.9
	father	40	27.4
	grand mothers	-	-
	other	1	.7
marital state	living together	68	91.9
	separate living	-	-
	separation by death	3	4.1
	divorce	3	4.1
education	elementary	2	1.4
	middle school	4	2.7
	high school	74	50.7
	under graduate	59	40.4
	graduate	7	4.8
family income (1000won)	500,000 below	3	2.0
	500,000 -1,000,000	8	5.4
	1,000,001-2,000,000	77	52.4
	2,000,001-3,000,000	42	28.6
	3,000,000 above	17	11.6

2. 신체적 아동학대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신체적 학대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주위의 물건을 집어 아이에게 던졌다'에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16명(78.9%), 1-2회가 29명(19.7%), 3-11회가 2명(1.4%)이었다. '아이를 움켜잡거나 때밀었다'에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16명(78.9%), 1-2회가 28명(19.0%),

3-11회가 3명(2.0%)이었다. '손으로 뺨 등을 때렸다'에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19명(81%), 1-2회가 27명(18.4%), 3-11회가 1명(.7%)이었다.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차거나 물어뜯었다'에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41명(95.9%), 1-2회가 6명(4.1%)이었다. '회초리, 굵은 막대, 혁대, 빗자루 등으로 때렸다'에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74명(50.3%), 1-2회가 55명(37.4%), 3-11회가 12명(8.2%), 12회 이상이 6명(4.1%)이었다. '온 몸을 마구 두들겨 팼다'에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37명(93.2%), 1-2회가 10명(6.8%)이었다. '담배 불 등으로 지졌다'에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47명(100%)이었다. '칼, 송곳, 망치, 도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에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46명(99.3%), 1-2회가 1명(0.7%)이었다. '칼, 송곳, 망치, 도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 아이에게 상처를 입혔다'에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47명(100%)이었다. '아이를 때린 후 데리고 병원에 가 본 적이 있다'에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17명(100%)이었다.

3. 체벌 지지도

초등학생 부모의 체벌에 대한 지지도의 평균은 32.51(SD 4.36)이었다(Table 3).

<Table 3> Beliefs in corporal punishment

variable	mean(sd)	N
Beliefs in corporal punishment	32.51 (4.36)	146

<Table 2> Physical child abuse

items	N = 147			
	none N(%)	1-2/yr N(%)	3-11/yr N(%)	12 above/yr N(%)
Throwing the object at me	116(78.9)	29(19.7)	2(1.3)	-
Clutching and pushing	116(78.9)	28(18.3)	3(2.0)	-
Slapping on the cheek	119(81)	27(18.4)	1(.7)	-
Kicking, pounding and biting	141(95.9)	6(4.1)	-	-
Rod, stick, belt, broom beating using a various objects such as	74(50.3)	55(37.4)	12(8.2)	6(4.1)
Beating all over the body	137(93.2)	10(6.8)	-	-
Burning with cigarette	147(100)	-	-	-
Threatening me with a knife, a hammer, a naxe, a gimlet the objects such as	146(99.3)	1(0.7)	-	-
Injuring me with the objects such as	147(100)	-	-	-
Hospitalized by belting	147(100)	-	-	-

(Table 4) Correlations of physical child abuse with another variables

	Beliefs in corporal punishment	physical abuse	parent's age	education	family income
Beliefs in corporal punishment	1.0				
physical child abuse	.244** (.003)	1.0			
parent's age	-.132 (.113)	-.273** (.001)	1.0		
education	-.131 (.120)	-.137 (.099)	.296** (.000)	1.0	
family income	-.159 (.057)	-.103 (.212)	.135 (.101)	.209* (.012)	1.0

\*\* p<.01 \* p<.05

#### 4. 신체적 아동학대와 제 요인간의 상관관계

신체적 아동학대와 제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4). 체벌 지지도는 신체적 학대( $r=.244$ ,  $p=.003$ )와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신체적 학대는 체벌 지지도( $r=.244$ ,  $p=.003$ )와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부모의 나이( $r=-.273$ ,  $p=.001$ )와는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모의 나이는 교육( $r=.296$ ,  $p=.000$ )정도와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신체적 학대( $r=-.273$ ,  $p=.001$ )와는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부모의 교육 정도는 부모의 나이( $r=.296$ ,  $p=.001$ ), 가족의 수입( $r=.209$ ,  $p=.012$ )과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가족의 수입은 교육( $r=.209$ ,  $p=.012$ ) 정도와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 IV. 논 의

본 연구는 신체적 아동 학대의 호발 발달단계인 학령기 아동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신체적 아동 학생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모들이 갖고 있는 체벌에 대한 신념이 신체적 아동학대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서술적 연구이다. 조사에 응답한 부모는 주로 모(71.9%)였고, 부(27.4%)도 참여되었다. 부모들의 나이는 주로 30대(55%)와 40대(43.7%)였으며, 교육 정도는 고졸(50.4%)과 대졸(40.4%)이 대부분이었다. 결혼 상태는 주로 동거형태

(91.9%)였고, 사별(4.1%)과 이혼(4.1%)도 있었다. 가족의 수입은 주로 100-200만원 미만(52.4%)과 200-300만원 미만(28.6%)이며, 100만원 미만인 요보호 가정은 7.4%였다. 이상과 같이 초등학교 자녀를 둔 지방 도청 소재지 일반 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Hong(2000)에 의하면 신체적 학대로 신고된 아동들의 가정의 수입이 100만원 미만의 요 보호 가정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대 고 위험군은 아니었다. 또한 신고된 학대 사례의 대부분이 30-50대 연령의 고졸 학력의 부에 의해 이루어진 Hong(2000)의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부모의 연령층이 30-40대로 신고된 학대 사례의 부모보다 나이가 더 적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주위의 물건을 집어 아이에게 던졌다(31명, 21%)', '아이를 움켜잡거나 떠밀었다(31명, 21%)', '손으로 뺨 등을 때렸다(28명, 19.1%)'와 같은 경한 신체적 학대가 발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Ahn(1998)의 연구 결과에서는 각각 10%, 9%, 12.7%가 발생한 것과 비교할 때 더욱 빈번히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심한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차거나 물어뜯었다(6명, 4.1%)', '회초리·굵은 막대·혁명대·빗자루 등으로 때렸다(73명, 51.7%)', '온 몸을 마구 두들겨 뺨했다(10명, 6.8%)' 등의 신체적 학대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Ahn(1998)의 연구에서는 4.5%, 54.3%, 10.1%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는 비슷하거나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심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담배 불 등

으로 지졌다. '칼, 송곳, 망치, 도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 아이에게 상처를 입혔다', '아이를 때린 후 데리고 병원에 가 본 적이 있다'는 항목은 Ahn(1998)의 연구에서는 각각 0.4%, 0.8%, 0.4%로 나타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아주 심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칼, 송곳, 망치, 도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1명, .7%)' 항목은 Ahn(1998)의 연구에서는 0.4% 였다. 또한 서울의 저소득층 3-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1996)의 연구에서는 Ahn(1998)의 연구나 본 연구에서 보다 경한 학대에서부터 아주 심한 학대까지 더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나라 중소도시보다 서울의 저소득 계층의 일반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동이 신체적 학대를 더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1986년과 1991년 두 번에 걸쳐 서울지역의 일반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반복 조사한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 대한 연구에서도 발생 비율이 66.2%에서 94%로 급격히 증가한 바 있다(Ko, 1992). 본 연구자는 부모와 함께 일반 가정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1998년 연구와 본 연구를 비교해 볼 때 경한 아동학대는 본 연구에서 많이 감소하였고, 아주 심한 아동학대도 약간 감소한 것 같으나, 심한 아동학대는 오히려 약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 체벌에 대한 지지도 평균 점수는 32.5였다. 이는 Ahn(1998)이 지방교대 부속 초등학교, 지방공립 초등학교, 농촌 지역 공립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체벌지지도 평균 점수인 26.59와 영유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Han et al. (2001)의 연구에서의 평균 점수인 27.74보다 높은 점수였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조사 대상자는 체벌에 대한 신념이 Ahn(1998)의 연구에서 보다 높았고, 그리하여 심한 신체적 학대의 발생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최근 2-3년간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 매체의 영향,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 등으로 국민들의 인식에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준 것이 경한 학대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심한 아동학대가 줄지 않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증가한 것은 체벌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진 부모들이 조기교육 등의 과잉 교육열을 성취하기 위해 올바른 훈육 방법보다 체벌을 쉽게 행사하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체벌에 대한 신념이 강하지 않았던 부모들은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아동학대는 잘못된 양육행동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태도를 바꿀 수 있었던 것으로 추론되고, 아주 심한 아동학대 부모들이 구속되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을 통해 계몽의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주 심한 아동학대도 감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체벌에 대한 신념이 초등학생에게 행해지는 신체적 아동 학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영향 요인으로 제시하였던 부모의 나이, 교육 정도, 가족의 수입, 체벌에 대한 신념 중 아동학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변수는 부모의 나이와 체벌에 대한 지지도였다. 부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학대가 덜 발생하였고, 체벌에 지지하는 정도를 나타낸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가 유의하게 많이 발생하였다. 이중 부모의 나이는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체벌에 대한 지지도는 중재의 초점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어느 정도 희망적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72%가 체벌을 사용하는데 반해 일본은 33%, 미국은 26% 정도이며, 우리 나라 아동의 92-98%가 매를 맞아본 적이 있다(Shin, 1986; Kim, 1987). 즉, 아동의 훈육 방법으로 우리나라 부모들이 체벌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체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버릇이 없어지고 교육상 좋지 않다는 관념까지 팽배해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체벌에 대한 지지도와 아동학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Straus(1983)는 체벌과 구타의 효과에 신념을 가진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고했다. 일반적으로 부모나 주 양육자는 자녀를 훈육할 때 체벌을 자주 사용하며, 체벌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갖거나, 체벌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매우 조심스럽고 일관성 있게 사용하면 아동의 행동을 조절하는데 효과적일 수도 있다(Ko, 1992)고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 체벌을 사용할 때 시기의 적절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의 격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고조되어 해악한 행동을 표출하게 되고 학대 행동으로까지 진전될 수도 있다(Hong, 1987; Cook & Bowles, 1974).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체벌의 사용은 아동학대의 전조적 행동으로 간주된다(Erlanger, 1974; Herzberger, 1983).

학대를 했거나 학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부모들을 중심으로 부모 자조집단을 구성하여 일상 생활에서 겪게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자신들의 경험과 느낌, 자녀 양육 문제 등을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줌으로서 각종 스트레스나 사회적 지지 부족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는 가정 폭력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기술, 신체 학대 없이 훈육할 수 있는 방법, 감정 표현의 방법, 스트레스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함께 병행하여 실시하고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보급해야 한다 (Hong, 2000).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은 실제 부모가 되기 이전에 출산 전후 관리를 받는 예비 부모들을 위해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부모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정기 예방 접종 등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건강한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중재를 시도해야 한다. 또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만성 질환을 가진 아동의 부모들을 위해서도 부모들이 건전한 양육을 통해 학대를 하지 않도록 중재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체적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교 부모들을 대상으로 체벌에 대한 인식과 신체적 아동학대의 정도를 파악하고, 신체적 아동학대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제 변인들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여 초등학교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를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초등학교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신체적 아동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둘째, 초등학교의 부모가 지각하는 체벌 지지도가 신체적 아동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자료수집은 2000년 6월 1일에서 10일까지 전북 지역 공립 초등학교에서 5개 학급을 편의 표출하였으며, 해당 초등학교 부모를 대상으로 160개의 설문지 자료를 배부·회수하였다. 연구도구는 Ko(1992)가 제작하고, Ahn(1998), Han et al.(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는 체벌지지도 도구와 Straus(1979)의 가족갈등척도 (Conflicts Tactics Scales)중에서 폭력 척도를 변안, 수정(Kwon, 1992)하여 Ahn(1998)의 연구에서도 사

용된 바 있는 신체적 아동학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Pearson's correlation으로 처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들의 연령은 30-40세 미만이 83명(55%)로 가장 많았고, 아동과의 관계는 어머니가 105명(71.9%)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는 동거형태가 68명(91.9%)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정도는 고졸이 74명(50.7%)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의 수입은 100-200만원 미만이 77명(52.4%)로 가장 많았다.

2. 부모들의 신체적 아동 학대 빈도는 다음과 같다.

'주위의 물건을 집어 아이에게 던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31명(21.1%)이었다. '아이를 움켜잡거나 때릴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31명(21.0%)이었다. '손으로 뺨 등을 때렸다'고 응답한 경우가 28명(19.1%)이었다.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차거나 물어뜯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명(4.1%)이었다. '회초리, 굵은 막대, 혁대, 빗자루 등으로 때렸다'고 응답한 경우가 73명(51.7%)이었다. '온몸을 마구 두들겨 뺨다'고 응답한 경우가 10명(6.8%)이었다. '담배불 등으로 지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칼, 송곳, 망치, 도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1명(0.7%)이었다. '칼, 송곳, 망치, 도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 아이에게 상처를 입혔다', '아이를 때린 후 데리고 병원에 가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3. 신체적 학대는 체벌 지지도( $r=.244, p=.003$ )와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부모의 나이( $r=-.273, p=.001$ )와는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모의 나이는 교육( $r=.296, p=.000$ )정도와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신체적 학대( $r=-.273, p=.001$ )와는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부모의 교육 정도는 부모의 나이( $r=.296, p=.001$ ), 가족의 수입( $r=.209, p=.012$ )과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가족의 수입은 교육( $r=.209, p=.012$ )정도와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의 결과로 확인되었던 체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학령기 아동은 체벌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발달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모들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부모지지 모임, 부모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보건교사의 활동으로 적극 확대시켜야

한다.

2. 학령기 다음으로 체벌에 많이 노출되는 연령층인 학령전기 아동 부모의 체벌에 대한 신념, 아동학대 정도를 파악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

- Ahn D. H. (1999). Establishment of mandatory report system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Paper presented at Seminar of Korea Associa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Seoul.
- Ahn D. H. & Hong K. E. (1987). A survey of child abuse in Korea. *Mental Health Research*, 6, 53-65.
- Ahn, Hye Young (1998). *Predictive model of child abuse in Mot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Choi, S. J. (1981). New Approach of Analysis for effective punishment. *Child Welfare*, 35(19), 8-12.
- Conger, R. P., Burgess, R. L., & Barrett, C. (1980). Child abuse related to life change and perceptions of illness : some preliminary findings. in J. V. Cook & R. T. Bowles(eds), *Child abuse-commissions and omissions*. Toronto: Butterworth Company, 255-261.
- Erlanger, H. S. (1974). "Social class and corporal punishment in child-rearing : a reassessment." *A.S.R.*, 39(1), 68-85.
- Garbarino, J. (1977). The human ecology of child maltreatment : a conceptual model for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721-735.
- Han, K. J., Bang K. S., Yun, S. N. (2001). The study on the model development and analysis of 'Child Growth and Developmental Clinic'. *The J.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2(1), 49-59.
- Herzberger, S. D. (1983). "Social cognition and transmission of abuse." in D. Finkelhor, R.J. Gelles, G.T. Hotaling & Staus, M.A.(eds.) *The Dark Side of Families*. Beverly-Hills : Sage Publication, 317-329.
- Hong, K. E. (1987). A prevention of child battering. *Mental Health Research*, 6, 82-93.
- Hong, K. E. (2000). A Survey of battered child and sequelae. Paper presented at Seminar of Korea Associa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Seoul.
- Kim, Kwang-iel(Eds.) (1988). A Battered Child : Family violence. Seoul. Tamgu Dang.
- Ko, B. J. (1983). An incidence survey of battered child. *Mental Health Research*, 6, 66-81.
- Kim, D. H. (1981). *Korean family system*. Seoul. : Seoul National Univ. Press.
- Kim, K., & Ahn, D. (1995). Some problems of child welfare in Korea. *Mental Health Research*, 14, 221-233.
- Ko, Bock-Ja (1992). An incidence survey of battered child in the two elementary schools of seoul.-a follow up study in 5 years-. *Korean J Child & Adol Psychiatr*, 3(1), 56-72.
- Ko, Sung-Hye (1992). *Studies on defining child abuse in Korea and the perceptual differences between mother and child toward the child abu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won, Ja Young (1992). *A study on the effects of physical abuse in the emotions and behaviors*. Unpublished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Joo Yeon (1996). *Peer relationships and personality of abused children..* Unpublished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Shin, Y. W. (1986). A study on the social demographic and family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child abuse in Korea.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 Scal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75-78.

You, A. J. (1985). *Korean traditional child education*. Seoul : Jeongmin-sa.

- Abstract -

## Influences of Beliefs in Corporal Punishment to Physical Child Abuse in Elementary Student's Parent

*Ahn, Hye Young\**

Purpose : I investigated how beliefs in punishment have influence on child abuse. Also, I investigated how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parents' have influences on child abuse by parents. Sampling was conveniently and total 160 parents replied to the study. Data analysis was done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using SPSSWI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Mild child abuse : 'Throwing the object

at me(21.1%)', 'Clutching, and pushing (21.0%)', 'Slapping on the cheek (19.1%)'. Severe child abuse : 'Kicking, pounding and biting(4.1%)', 'Rod, stick, belt, broom beating using a various objects such as(51.7%)', 'Beating all over the body(6.8%)'. Very severe child abuse : 'Burning with cigarette(0%)', 'Threatening me with a knife, a hammer, a naxe, a gimlet the objects such as(0.7%)', 'Injuring me with the objects such as(0%)', 'Hospitalized by belting(0%)'.

Correlations of major variables were as follows. Physical child abuse by elementary student's parents has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beliefs in punishment( $r=.244$   $p=.003$ ) and has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parent's age( $r=-.273$ ,  $p=.001$ ). But physical child abuse has not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family income, education. Conclusion : Beliefs in punishment of parents have influences on child abuse. To prevent child abuse, effective parenting program development is required.

Key word : Physical child abuse, Beliefs in corporal punishment

---

\* Eulji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t. of Nursing